
수 신 각 언론사 법조.여성.사회 담당
발 신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02-825-1273 / 010-4242-1369 / kasvrc@daum.net)
제 목 2016년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시민감시단 디딤돌·걸림돌 선정
날 짜 2017. 1. 11 (9쪽)

보 도 자 료

- 2016년도 성폭력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감시단 디딤돌·걸림돌 선정 -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는 2004년부터 매해 시민감시단 사업으로 성폭력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생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사례(디딤돌)와 피해생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2차 피해를 야기한 사례(걸림돌), 성폭력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 외 분야에서 피해생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 사례(특별상)를 선정하고 디딤돌, 특별상에 대해 시상하여 왔습니다.
3.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서 성폭력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 및 결과를 모니터링 한 전국 성폭력상담기관에서 추천받아 **2016년 시민감시단 성폭력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여성인권보장을 위한 디딤돌 6건, 걸림돌 5건(대상자 7건), 특별걸림돌 1건을 심사위원단에서 선정**하였사오니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선정자 명단 및 선정 결과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총회에서 시민감시단 디딤돌 선정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가. 장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여성프라자 국제회의장(1층)
 - 나. 일시: 2017년 1월 17일(화) 11:00 ~ 12:30
5.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성폭력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감시단
디딤돌·걸림돌 선정 대상자 명단**

번호	이름	소속	
디딤돌	1	안병위 팀장	여주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2	백우현 수사관	익산경찰서
	3	최영식 수사관	청주청원경찰서
	4	오창근 경감, 김응희 경감 박정훈 경위, 곽동규 경위 박충호 경사, 최광물 경장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광역 1팀
	5	강현욱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6	김주호 재판장 이혁, 권순향 판사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걸림돌	1	성기범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유창훈 판사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	엄성환 판사	부산지방법원
		박석근 재판장 이환기, 김유성 판사	부산고등법원 제3형사부
	3	이성구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4	김병철 재판장 장현석, 구준모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5	엄상섭 재판장 류봉근, 이호연 판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
특별걸림돌	1	박기묵 기자	cbs노컷뉴스

2016년도 성폭력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수사·재판 과정상의 디딤돌·걸림돌 선정 결과

○ 디딤돌 선정자

△ 여주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안병위 팀장

안병위 팀장은 가해자가 몰래 촬영한 영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상황에서 신고를 받은 다음 날 신속하게 피해자 조사를 마친 후 수사가 가능한 인원 전원을 동원, 잠복하여 이틀만에 가해자를 체포하였다. 가해자가 대포폰과 대포차를 사용하고 있어 현장에서 신속하게 체포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찾을 수도, 동영상 유포를 막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수사로 가해자를 체포하였다. 온라인 상에서 동영상 유포의 심각성이 나날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 수사관의 이러한 노력은 피해자에게 신속한 신고를 통해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다는 신뢰를 갖게 하였다.

△ 익산경찰서 백우현 수사관

백우현 수사관은 지적장애에 준하는 판단능력을 가진 피해자의 행동특성에 주목하고 이러한 피해자의 특성을 이용해 강간을 한 가해자의 범행을 피해자관점을 유지하면서 수사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또한 정신장애 등급을 받지 않은 상태이지만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확인하고 치료받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 피해자의 상태를 상담하고 소견서를 요청하는 등 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었다.

△ 청주청원경찰서 최영식 수사관

직장상사로부터 강간피해가 있었던 사건에서, 회사 내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회사의 지휘 관리체계에 있는 피해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을 예측하여 4명의 여직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목격자의 진술 및 CCTV 등의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여 가해자의 거짓 진술을 무력하게 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경고하고, 권력을 이용하여 증거인멸이나 사건에 대한 왜곡으로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았다.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으로 2차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아직도 많은 현실에서 피해자 관점의 높은 감수성으로 수사를 진행하였다.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광역1팀

(오창근 경감, 김응희 경감, 박정훈 경위, 곽동규 경위, 박충호 경위, 최광물 경장)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년 전 강간살인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어 그때 당시 남긴 DNA로 의지를 가지고 끈질기게 추적하여 범인을 검거하였다. 수사관의 의지가 성폭력 사건 해결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증명하였으며, 늦게나마 범인을 검거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였다.

<기사>

집념의 경찰관, 18년만에 강간살인 피의자 검거

2016-11-21 15:26 / 한겨레 안영춘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김응희 경위
125명 사진 대조해 피의자 특정
DNA 확보해 18년 전 DNA와 일치 확인

18년 전인 1998년 10월 27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 집에 살던 주부(당시 34살)가 넥타이로 두 팔이 묶인 채 목이 졸려 살해됐다. 살해되기 전에 성폭행까지 당했다. 피해자의 몸에서 확보한 디엔에이(DNA)로 가려진 범인의 혈액형은 에이비(AB)형이었다. 사망 추정 시간 1시간쯤 뒤 서울 을지로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51만원이 인출됐다. 폐회로티브이(CCTV)에는 범인의 얼굴이 찍혀 있었다. 경찰은 2년 동안 수사본부를 운영하고, 지상파 공개 수배 프로그램도 사건을 소개했지만 끝내 범인을 잡지 못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수사본부에 '막내'로 투입됐던 김응희 경위(당시 경장)는 지난 6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온 뒤 목은 사건을 다시 끄집어냈다. 디엔에이와 혈액형, 사진이 있는데도 범인을 잡지 못한 것이 내내 마음에 걸리던 터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0년 제정돼, 15년이었던 강간살인의 공소시효를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이제 범인도 디엔에이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돼, 범인을 입증할 유력한 방법이 늘어났다.

사건 당시 범인은 20대로 추정됐다. 1965~1975년생 가운데 비슷한 수법의 전과자 8000여 명을 간추리고, 다시 에이비 혈액형만 분류했다. 125명이 남았다. 이들의 얼굴 사진을 현금인출기 폐회로티브이에 찍힌 사진과 하나하나 대조했다. 그 안에 동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 그의 뒤를 쫓아 그가 버린 물품을 수거한 다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디엔에이 분석을 요청했다. 사건 당시 확보한 디엔에이와 일치했다. 경찰은 잠복 끝에 지난 18일 피의자를 경기도 양주에서 붙잡았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사건의 피의자 오아무개(44)씨를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오씨는 생활정보지에 실린 전셋집 정보를 보고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위는 “당시 피해자의 자녀가 초등학생이어서 더욱 사건을 잊지 못하고 지내다가 늦게나마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 줄 수 있게 됐다”며 “이번에 범인을 잡고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했는데, 나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고맙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강현욱 검사

운동부 코치에게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가 있던 피해자가 4년 뒤에 신고를 해서 피해자 진술 이외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가해자의 고소취하 종용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강현욱 검사는 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참고인 조사를 통해 추가 피해자를 확보하였고, 가해자의 자백을 받아내 기소하여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김주호 재판장, 이혁 판사, 권순향 판사)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입장과 상황에 대한 정황적 고려 없이 편협한 법적 테두리에 맞추어 의식이 있었는지에만 집중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항고기각이 되었던 사건을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공소제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준유사강간의 증거로는 충분한 상황임을 판단하여 죄명을 변경해 공소제기 명령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법적인 정보가 부족한 피해자의 초기 대응을 보완해줌으로써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열어 주었다.

○ 결림돌 선정자

△ 부산지방법원 성기범 검사

△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유창훈 판사

데이트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 후 택시비를 요구했다는 점과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를 무고로 기소,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해 상황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를 신고한 피해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상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의 태도는 문제적이며, 이러한 판결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위축시키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 부산지방법원 엄성환 판사

△ 부산고등법원 제3형사부(박석근 재판장, 이환기 판사, 김유성 판사)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직장 내의 우월적 지위를 가진 가해자가 다수의 피해자에게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한 사건에서 성폭력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노조갈등과 연결시켜 정치적인 요소로 왜곡하여 해석하였으며,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에 대한 몰이해를 바탕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성폭력전담재판부(제12형사부) 이성구 판사

성폭력전담재판부의 도입 취지는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통념들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성폭력 사건 재판 중 “여성이 이전에 성경험이 없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준다. 성경험 많은 여성과 적은 여성은 대응방식이 다르다. 성경험 없는 여성이 금방 오케이 하면서 모텔에 쉽게 가지는 않는다. 개인적으로 여성이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는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등 공적인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법에 근거해 유무죄 판단을 해야 하는 판사로서의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왜곡된 통념에 근거한 사건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재판장, 장현석 판사, 구준모 판사)

지적장애여성이 친부에 의하여 장기간 성폭력 피해가 있었음에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

형사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대해 의심하고, 가해자의 건강상태 상 성관계가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하였다. 해당 사건은 지적장애에 대한 이해와 친족성폭력 사건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인에 대한 피해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간과한 채 판결하였다. 또한 친족성폭력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방기하였다.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엄상섭 재판장, 류봉근 판사, 이호연 판사)

피해자는 시각장애 1급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심리평가결과에서 지적장애 3급에 준하는 지적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진 장애의 특성과 심리상태 및 지적능력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장애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이 과장되어 신빙성을 의심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물이해를 드러내는 부적절한 판결을 하였다.

○ 특별걸림돌 선정자

△ cbs노컷뉴스 박기묵 기자 - '8년간의 생지옥...악마를 보았다'(2016-10-03)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기사는 사건의 자세한 내용보다는 그 사건의 함의, 어떻게 하면 성폭력을 줄일 수 있을지, 사람들의 인식 개선 등을 위주로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부에 의한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한편의 소설처럼 구성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보다는 관음증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특히 명백히 범죄행위인 성폭행을 “바깥 일을 마치고 온 형부는 당시 19살이던 처제를 범했다” 등 ‘범하다’라는 가부장적인 표현의 단어를 사용하여 에로틱하게 표현하는가 하면, “바다가 좋았고 배가 편했다.”, “모든 것을 잊고 새출발을 다짐했다” 등 증명할 수 없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심경을 넣어 에로틱 소설로 재탄생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시집도 안 간 처제가 임신을 했다”, “처제는 창피해서 아기의 눈을 쳐다볼 수 없었다” 등 사회적 편견을 그대로 드러내는 남성중심적 시각에서 기사를 작성하였다.